

# DMZ 평화순례 체험학습 보고서



2117 임민영

학교에 일찍 간 건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다.

쉬는날 6시 40분까지 학교에 가야한다고 들었을 때 솔직히 안가고 싶기도 했다.

그래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일찍 일어나서 안 늦고 학교에 갔다.

학교에 갈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체험학습을 할 때 힘들까 걱정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그치기도 해서 다행이었다.

버스에서 철원으로 갈 때는 '수리'라는 영화와 '공동 경비구역'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갔다.

점심으로는 막국수와 수육을 먹었는데 배고팠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었다.

그리고 그곳에 종업원 분들이 엄청 친절하셔서 기뻐하셨다면 철원에 놀러와 또 들리고 싶다.

밥을 먹고 노동당사에 갔는데 정말 많이 기억을 나지만 강사분께서 우리는 분단이 된 후

64만 3시간 만에 그곳,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왔다고 하셨다.

그다음엔 정지석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고, 철원 평화 전망대 모노레일을 타고.

거기서 태봉국 도성지 같이 보이는 곳도 흥미롭게 보았고 낙타고지라는 산도 내 눈으로 보았지만 꿈 같았다.

원정리역을 나의 눈으로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소이산을 올라갈 때는

힘들었다. 나와 지원이, 찬혜, 설희 등 7명이 길을 잃었는데 그곳에서 뱀도 보았다.

진짜 무서웠다. 그래도 길을 잘 찾아 내려와서 다행이었다.

학교로 다시 돌아갈 땐 엄청 힘들었다.

차를 오래 타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.

그래도 갈 땐 모두 축구 경기를 볼 땐게 재미있었고 저녁으로 먹은 햄버거도 엄청 맛있었다.

다음에 또 이런 체험활동을 또 가고 싶다.